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12일 월요일 음 8월 26일 (3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겠다. 아침 기온은 16-18℃, 낮 최고 기온은 22-24℃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including precipitation and cloud cover percentages.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including food safety and disaster preparedness.

월드뉴스

마스크 벗은 트럼프 “코로나 별 거 아냐”

확진 후 첫 공개 행사 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공개 행사를 열었다.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과 질서’를 주제로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행사를 열고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했다.

그는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들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좌파를 거부한다”며 민주당은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심 지역을 통치해왔지만, 재앙과 가난,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코로나 감염 상태인 트럼프 대통령은 군중과 멀리 떨어져 백악관 발코니에 서서 연설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뒤 마스크를 벗고 “기분이 좋다”며 연설에 나섰다.

코로나19가 별것 아니라는 식의 발언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백신이 나올 것이라면서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도록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매우 큰 유세를 시작할 것”이라며 선거 캠페인 재개를 강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약 18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된 지지 기반인 백인층 이외의 인종과 계층을 상대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데 주력했다.

한리일보 Jeju Halla Park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백록담



김성훈 편집부장

70년대 초중반으로 기억한다. 기자의 부친이 일요일 아침이면 뭔가를 꺼내 TV를 주시하곤 했다. “준비하고 쏘세요.” 주택복권 추천 모습이...

동굴이나 움집에 살던 선사시대 보다 못한 2020년

일 밤 TV를 켜는 사람들이 전국에 수백만명은 되지 않을까.

소유하고 있는 주택 형태, 어디에 있는가 등이 사람을 평가하고 신분을 가르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수십년을 넘나든 주말 풍경이 집 마련이라는 공통점 속 다른점이 있다면 40여년전 당시는 월급만으로도 집 장만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소위 급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자수성가로 집을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서울이라는 특정지역을 예로 들지 않아도 주택 문제는 전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다. 제주라 다를 바 없다. 제주지역 웬만한 아파트 가격은 5억원 전후로 형성되고 있다.

서울지역 84㎡ 이하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단다. 전용면적 31㎡ 아파트는 6억원을 돌파했다. 웬만한 아파트 한채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매년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쏟아내곤 하지만 집값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아니 앞 사고 싶어 한다. 자가 유무와 크기,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내년 이후 집값이 어떤 것 같을까 물었더니 10명 중 4명은 “오른다”고 답했고 3명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이 오르다보니 월세나 전세값도 폭등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집 없는 서민은 이래저래 힘든 세상이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세가지가 있지 않은가. 의식주다. 요즘 세상에 없어서 굶주리는 이는 물론 혈벳은 사람은 없을 터이다. 그런데 집은? 현재를 살아가는 서민들이 첫손에 꼽는 스트레스 주범이다.

열린마당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의 기준’



김경태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장

최근 언론에 나오는 병역·취업·대입 특혜시비 관련 불미스러운 기사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감까지 느끼게 하고,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전년에 비해 점수는 2점, 국가별 순위는 6단계 상승해 3년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OECD 회원국들로 대상을 좁히면 36개국 중 27위이며, OECD 평균 점수인 67.8점에도 미치지 못하여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한 가을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양창원 제주수방서 연동119센터장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내보단 야외로 나가게 되고, 가을에 접어들어 단풍에 젖어들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있다. 세 번째, 적절한 산행계획! 내 체력을 고려한 산행이 돼야 과도한 체력소실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등산은 오를 때 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 뛰어 내려오다 미끄러지거나 주위사람과 부딪혀 다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도 등산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나는 팬잡겠지 하는 생각과 행동에 나, 가족, 주위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Jeju Halla Park advertisement for domestic products, listing various fruits and vegetables.

Advertisement for Hanlim Jeongmyo, listing various types of rice and their prices.

Advertisement for Gamgul Jeongmyo, listing various types of rice and their prices.

Advertisement for Gamgul Jeongmyo, listing various types of rice and their prices.